



## 한국 정치문화 사상 원류(原流)에 관한 문헌적 고찰

- 삼국유사(三國遺事) 속 홍익사상(弘益思想)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A historical consideration of political culture contents rooted in Korea

---

저자  
(Authors) 손애경

출처  
(Source) [영상문화콘텐츠연구 4](#), 2011.04, 87-132 (46 pages)  
[The Journal of Image and Cultural Contents 4](#), 2011.04, 87-132 (46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Image & Cultural Cont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26910>

APA Style 손애경 (2011). 한국 정치문화 사상 원류(原流)에 관한 문헌적 고찰. 영상문화콘텐츠연구, 4, 87-13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1 11:1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한국 정치문화 사상 원류(原流)에 관한 문헌적 고찰

— 삼국유사(三國遺事) 속 홍익사상(弘益思想)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

손애경\*

### 목 차

- I. 서 론
- II. 삼국유사(三國遺事) 텍스트 분석을 위한 선행 연구
  1. 상고서(上古書) 해석에 대한 시선들
  2. 삼국유사 텍스트 분석에 관한 변수들
- III. 三國遺事 1卷 紀異—古朝鮮의 홍익인간에 대한 재해석
  1. 古朝鮮
  2. 庶子桓雄
  3.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4. 弘益人間的 문자적 해석, 그 시대로의 회귀
- IV. 한국정권 정치문화를 통해서 본 홍익사상(弘益思想)의 재조명
- V. 결 론

### ■ 국문초록

5천 년 민족역사 속에서 면면히 내려오고 있는 민족사상이며, 우리 생활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홍익인간이라는 민족사상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의 정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논문투고일: 2011년 2월 25일, 심사완료일: 2011년 4월 8일.

치사상의 원류를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환인과 환웅의 내용 중에서 홍익인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틀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소로서, 삼위태백에 대한 선택의 당위성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텍스트 분석들을 통하여, 한국 정치사상의 원류라 할 수 있는 홍익사상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그 정치원리를 대한민국 현 정치현실에 대입, 분석해보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홍익인간정치를 실현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대한 텍스트를 재해석하면서, 민심을 제대로 읽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홍익인간정치의 요체이면서, 진정한 홍익인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바로, 홍익인간정치로의 발현을 말하는 것이고,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가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홍익사상, 홍익인간정치, 정치사상, 삼국유사, 고기(古記)

## ■ Abstract

### A historical consideration of political culture contents rooted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low of political thought in contemporary Korea. In approaching the issue, I am focusing on Korean national political thought which called "Hongik ingan thought succeeded in five thousand years".

Especially, I try to find the way how we can realize the framework of 'Hongik-ingan thought' through contents of 'Hwanin'

and 'Hwanwoong' recored in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Samguk-yusa)'s 'Gojoseon' section.

In addition, I do an analysis of rightness why we should choose 'Samwi-taebaek' for the place to actualize this. Reminding basic meaning of 'Hongik-ingan thought', I take the approach of literature review for application and analysis of this political thought which we can deem the beginning of political thought in Korea.

Above all things, I reinterpret the contents of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Samguk-yusa)'s 'Gojoseon' section. My reasons for taking this approach are to know about the virtues of a good leader include how to perceive the drift of the public sentiments and how they manages its proper policy towards public sentiment.

This helps draw a conclusion that we should go for realizing true 'Hongik-ingan thought' This is manifestation of 'Hongik-ingan thought' and substantive approach of what we need for realizing 'Hongik-ingan thought'.

Keywords : Hongik thought, Politics of Hongik-ingan,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Samguk-yusa),  
Go-gi

## I. 서론

냉전 시대 이후,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지나간 자리에, 국내외적으로 정보산업화 시대에 걸 맞는 실리적인 명분을 지향하는 정치사상이 등장하고, 국가간 경계보다는 세계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추구하는 이때에, 정의론과 정치의 근본 목적을 상기하고자 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대두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 정치사상의 원류라 할 수 있는 홍익사상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그 통치이념을 한국 내 정권간의 정치체계에 대입,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홍익인간은 대한민국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란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이상이기 때문(문교부 1958, 4-5)이라는 이 문구를 보더라도,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정부 교육정책에서도 중요한 핵심적 근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욱이, 임시정부에 의하여 건국의 이념<sup>1)</sup>으로 자리 잡은 홍익인간

---

1)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정의(정의)를 이루는 지름길이다.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배려" 또는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사상은 시각에 따라 그 의미를 다소 달리하기도 한다. 하나는 인간을 존중하면서 사회, 국가 및 인류공동체에 대한 봉사과 사랑을 추구하는 이념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최상의 목표 가치로 중시하는 인본주의 정신이다. 여기서 '인간'이란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한 개념으로 인간사회-인간세상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홍익인간은 원래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개념이지 결코 사람중심의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부여의 차이는 전자는 협의적 홍익인간 개념이며, 후자는 광의적 홍익인간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양자간의 견해 차이는 극복될 수 있

사상은 공기와도 같이, 인식하였든 인식하지 못하였든 5천 년 한민족 역사 속에서 깊숙이 뿌리내린 채 면면히 내려오고 있는 민족사상인데도, 그저 먼지 쌓인 비문처럼 텍스트로만 현재의 정치환경과는 단절된 채,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8년 12월호 ‘통일한국’에서 한국우리역사연구회 신완순은 역사로 보는 한반도와 한민족 〈신시태평지세(神市太平之世) 홍익인간〉이란 기고문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며, 마음 속에 맺힌 원을 풀어주고, 위태롭고 약한 자를 도와주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며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홍익인간의 참된 모습이다.”<sup>2)</sup>라 하면서도, 아직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홍익인간의 실상과, 어떻게 하면 홍익인간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후 전개된 자신의 글에서 기존 연구

---

을 것이다. 어쨌든 홍익인간 사상의 구체적인 근대적 실천방안은 조소앙(1887~1958년)의 ‘삼균주의’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조소앙은 이 ‘삼균주의는 단군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삼균원리는 홍익인간 이화세계하자는 우리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라 부연하였다.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민족의 고유적 이상이며, 통일국가건설과 세계일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 공리라 규정함으로써, 홍익인간 사상은 조소앙에 와서 재발견되어 삼균주의라는 신국가건설 이론으로 재해석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삼균주의는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임정의 건국구상인 〈건국강령〉(1941) 역시 삼균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유경문 2000, 254-255)

- 2) 홍익인간 추구 교육이념과 동떨어져, 홍익인간이란 무엇인가? 홍익인간 개념은 흔히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해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무엇이 홍익인간의 실상이며 어떻게 하면 홍익인간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중략- 어찌 보면 우리는 누구나 홍익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홍익인간의 유래와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일 것이다. (신완순 2008, 84)

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처럼 그 역시, 홍익인간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신완순이 논증의 자료로 삼은 ‘삼국유사’와 함께 ‘삼성기<sup>3)</sup>’, ‘태백일사<sup>4)</sup>’ 등을 실증적 사료로 인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삼성기와 태백일사는 운초 계원수가 편찬한 ‘환단고기’에 실려 1980년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이후 우리나라 재야사학계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사료임에는 누구도 부정키 어렵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료들 - 삼성기, 태백일사 등 - 은 그것이 역사의 실증적 자료로서 학계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존재한다는 것, - 비록 그 존재를 믿고 더 나아가서는 내용의 신뢰성을 믿는 것이 극단적인 국수주의적 발상이라 지탄을 받는다 하여도, 진실 여부를 떠나 - 그 자체만으로도 민족의 일원으로서 조상의 발자취를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라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는 단편적인 견해일지는 모르나, 기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극히 한정된 사료에만 의존해 왔던 학계에 한민족 고대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틀을 - 비록, 그것이 재야사학자들에 의해서만 주장되고 있을 지라도 - 제시하여 준 것만으로도 그것이 지닌 가치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3) <삼성기>는 두 종류가 있어 서로 비슷하나 완편은 아니다. 안함노(?-640)가 지어 전부터 우리 집안에 전해오던 것을 <삼성기전 상편>이라 하고, 원동중이 지은 것은 태천백진사 관묵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그것을 <삼성기 하편>이라 하였다. 이것을 모아 잡아 <삼성기전>이라 한다. (계연수 2006)

4) <태백일사>는 일십당 주인인 이백이 엮은 것인데, 해학 이기선생이 가지고 있던 것이다. 여기에는 환단으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학문과 경문이 다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한 근거는 한번 보아 곧 알 수 있게 되어있다. 또 거기에는 <친부경>과 <삼일고> 두 글이 다 들어 있어 선비들의 대학 중용에 비교할 만하다. (계연수 2006)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는 실증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에서 실증적 자료는 유물과 서적이며, 유물과 서적(사서 및 개인문집 등의 문서)은 서로 교차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덧붙여, 사서 역시 인접 국가의 실증적 자료와도 교차검증이 되어야만 실제적이라 할 수 있고, 그제서야 역사적으로 현실성을 지니게 되며, 학계의 주류적 이론으로서 검증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민족의 고대사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실증적 자료로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함께, 비록 정사는 아닐지라도 일연의 삼국유사라는 것에 부인할 수 없다.

그 원인을 많은 외세의 침략과 함께 일제의 강제병합 및 6.25 동란이라는 역사적으로 큰 난세를 겪으면서 많은 공사(公私)의 기록물이 유실된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우리의 역사이기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연구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홍익인간이라는 문자가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삼국유사의 텍스트에 함의되어 있는 상황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선행연구들의 해석 배경과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인이면 누구나 민족정신이라 알고 있는 한민족 고유한 정치사상인 홍익인간을 사적(史籍)인 관점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숙고하여 고찰해봄으로써 지금 이 시대에 홍익인간은 어떤 정체성으로 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Ⅱ. 삼국유사(三國遺事) 텍스트 분석을 위한 선행 연구

### 1. 상고서(上古書) 해석에 대한 시선들

본 연구에서 다룰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대한 텍스트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역사서 또는 상고서(上古書)에 대한 문헌적 해석의 정통성에 있어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해석의 달라짐을 어떻게 경계하였는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삼국유사에 기재된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의 두 문헌의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중국 후한시대 반고(班固:32~92)가 서기 79년 장제(章帝)의 칙령에 의해 500 여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유교 경서에 관하여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함께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절충하여 통일된 것을 편찬한 백호통의(白虎通義)<sup>5)</sup>를 예로 살펴보면, 한자가 그들 자국의 글자임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뜻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거나 또는 후대에 이르러서는 심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백호통의 8권 성명편에는 《禮 內則》曰：“子生，君沐浴朝服，夫人亦如之。立于阼階西南，世婦抱子，升自西階，君命之士。嫡子執其右手，庶子撫其首。君曰‘欽有帥’，夫人曰‘記有成’。告于四境。”四境者，所以遏絕萌芽，禁備未然。故《曾子問》曰：“世子生，三月以名，告于祖祢。”<sup>6)</sup> 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예기 내칙에 있는 원문은世子

5)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6) 예기 내칙에 이르길 아들이 태어나면 임금은 목욕을 하고 조복을 갈아입는데 부인도 이와 같이 한다. 모두 조계에서 서서 서남쪽을 향한다. 세부(궁중에서 일하는 여자)가 아들을 안고 서계로부터 올라온다. 적자는 오른손을 잡아주고, 서자는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임금이 명이 사에게 내려진다. 임금은 "삼가 가르쳐서 착하게

生，則君沐浴朝服，夫人亦如之，皆立於阼階西鄉，世婦抱子升自西階，君名之，乃降。適子庶子見於外寢，撫其首咳而名之，禮帥初，無辭。凡名子，不以日月，不以國，不以隱疾；大夫、士之子，不敢與世子同名。妾將生子，及月辰，夫使人日一問之。子生三月之末，漱浣夙齊，見於內寢，禮之如始入室；君已食，徹焉，使之特餼，遂入御。公庶子生，就側室。三月之末，其母沐浴朝服見於君，擯者以其子見，君所有賜，君名之。衆子，則使有司名之。庶人無側室者，及月辰，夫出居群室，其問之也，與子見父之禮，無以異也。凡父在，孫見於祖，祖亦名之，禮如子見父，無辭。食子者，三年而出，見於公宮則劬。大夫之子有食母，士之妻自養其子。由命士以上及大夫之子，旬而見。冢子未食而見，必執其右手，適子庶子已食而見，必循其首。7)라 되어 있고, 같은 책 증자문편에서는 曾子問曰：“如已葬而世子生，則如之何？” 打開字典 孔子曰：“大宰、大宗從大祝而告于禰。三月，乃名于禰，以名遍告及社稷宗廟山川。”8)으로 되어 있다.

---

하리"하고 부인은 "기억하여 그렇게 기르겠습니다."한다며 사방에 이를 고한다. 사방에 고한다는 것은 소위 불행과 액운의 싹을 잘라버리고 미연에 방지시키는 것이다. 고로 증자문에 이르기를 "세자가 태어나면 3월에 이름을 짓고, 사직에 고한다." 하였다. - <http://www.guoxue123.com/zhibu/0301/01bhty/008.htm>

- 7) 세자가 출생했을 때에는 임금은 목욕을 하고 조복을 입는다. 부인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 모두 조계에서 서쪽을 향한다. 세부가 아들을 안고 서계로부터 올라온다. 임금은 이름을 지어주고 곧 내려간다. 적자, 서자는 외침에게 뵈는데, 임금은 그 머리를 어루만져주고, 어린애의 웃음소리를 듣고 이름을 지어준다. 예절은 세자 때와 같은 말은 하지 않는다. 대체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데는 일월을 가지고 짓지 않고, 나라 이름을 가지고 짓지 않으며, 은질로 이름을 짓지 않는다. 대부분 사의 아들은 감히 세자의 이름을 같게 하지 않는다. (이민수 1997, 331)
- 8) 증자가 물었다. “이미 장사를 지낸 뒤에 세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하자, 공자가 말했다. “태제, 태종이 태축을 쫓아서 이위에 고한다. 3월이 되면 예위 앞에서 이름을 짓고 두루 고하여, 사직, 종묘, 산천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이민수 1997,

살펴본다면, 예기 내칙은 왕과 왕비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르는가를 세자·적자·서자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수 백 년이 지난 후 후학들은 그것을 절충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면서도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이라 시작하고 있다.

백호통의에 있는 또 다른 예를 들면, 三月名之何? 天道一時, 物有變, 人生三月, 目煦亦能笑, 與人相更答, 故因其始有知而名之. 故《禮服傳》曰: “子生三月, 則父名之於祖廟.”<sup>9)</sup> 여기서 예복전은 13경 중 하나인 의례(儀禮)<sup>10)</sup>로서 원문에는 故子生三月則父名之, 死則哭之, 未名則不哭也.<sup>11)</sup>로 되어 있다. 후세에 통합된 백호통의에서는 자식이 태어나 세 달 만에 이름을 짓는 것은 그때서야 사람이라 볼 수 있다는 의미로 되어 있고, 그런 연유를 의례 상복편에서 인용하였다. 하지만, 의례 상복편은 자식이 이름이 없으면 상중에 곡을 할 수 없기에 이름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음에도 후세에 이르러서 그것을 변형시켰다. 여기 예를

218-219)

- 9) 왜 태어나서 세 달 만에 이름을 짓는가? 세 달은 천도의 한 단위, 즉 계절에 해당되어 그 안에 만물이 변화를 보인다. 사람도 태어난 지 세달이 지나면 눈에 뭔가 보이는 듯하고 웃음을 보이고 사람과 서로 반응을 한다. 고로 예복전(禮服傳)에 보면 '자식이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면 아버지가 시조의 사당에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한다. (반고 2005, 340-341) - <http://ctext.org/bai-hu-tong/xing-ming/zh>
- 10) 중국 고대의 지배자 계급의 관혼상제(冠婚喪祭) 등의 예법을 기록한 책. 《주례(周禮)》 《예기(禮記)》와 더불어 3례라고 하며, 구경(經)·십삼경(經)의 하나로 꼽힌다. 주초(周初)의 명신 주공(周公)의 저작이라고 하지만, 춘추시대부터 전국시대에 걸쳐서 성립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주대(周代)의 종교적·정치적 의례를 비롯하여 관혼상제 등 사회적 의례까지를 수록하였으나, 당시의 생활양식·풍속 등을 연구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 - <http://www.doopedia.co.kr/search/encyber/totalSearch.jsp>
- 11) 고로 자식이 태어나면 세 달만에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다. 죽으면 곡을 해야 하는데 이름이 없으면 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http://www.sidneyluo.net/b/b05/11.htm>

든 의례와 예기는 고대 사회상, 그것도 특정계층인 지배자들의 예법에 대한 것을 기술한 것인데, 그것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생활의 방식도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 예법도 변화하게 됨을 거스르지 못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후세에 옛 것에 대한 재해석 내지는 통합에 따른 침삭이 그리 큰 문제가 된다고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침삭이 불분명한 인용에 의한 것이고, 더욱이 만일 그러한 침삭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가정하면,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어떤 식으로 후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만일 위의 글에서처럼 의례나 예기라는 원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라져서 전해지지 않고, 단지 후대의 학자들에 의하여 편찬된 백호통의만 전해진다면 후대인들은 백호통의에서 적시한 예문의 내용을, 의례나 예기라는 원문이 아닌, 백호통의에 기재된 것이 정통성을 지닌 원문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 기우일지라도 - 백호통의에만 국한되는 일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경서에만 있지 않고 문자화로 기록된 모든 것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져오는 오류에 의한 결과는 예상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또 다른 문헌의 예를 살펴보면, 중국 위진남북조(謂晋南北朝) 시대 양(梁)나라 문인 유험(劉勰, 465~521)은 그의 저서 문심조룡(文心雕龍) 사전(史傳)편에서 전달과정의 왜곡과, 확대재해석 등의 사서기록 오류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고 있다.<sup>12)</sup> 이는 분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12) 먼 과거의 사실을 추적함에 있어 과거로 멀리 거슬러 올라갈수록, 기록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공양고(公羊高)는 논평하기를 <전해들은 것은 서로 다른 해석을 때문에 말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리고 순황(荀況)은 말하기를, <먼 과거의 일은 생략해서 전하게 되고 최근의 일은 지나치게 상세히 전하게

모두 진실은 아니며, 그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을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고의적이거나 또는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관이나 관계자에 의하여 얼마든지 왜곡되었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사서기록 – 물론 사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사서(史書)는 언제나 그것을 기록하는 자에게 정직함과 공정함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관에 의해서 정직하게 기록되었다고 강변하

---

된다.)고 했다. 사실상 의심스러운 것은 기록하지 말아야 하는데, 역사기록은 본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기이한 것을 편애하여 사실들이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전해들은 것을 전달할 때는 과장해서 그것을 확대하고, 먼 과거의 일을 기록할 때는 그것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그들은 상식적인 것은 내던져 버리고 기이한 것을 취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보증이 없는 설명들을 위한 버팀대를 찾기 위하여 마치 구멍을 뚫고 땅을 파헤치듯이 한 다음, <이전의 사서들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내 저서에는 기록되었다>라고 허풍을 떠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잘못과 과장의 원천인데, 과거에 관한 서술에 있어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이다. –중략– 우리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설명에는 여러 종류의 오류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의 시대에 관한 역사적 설명에도 여러 종류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의 자료를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정한 마음을 지녀야만 하는 것이다. (若夫追述遠代，代遠多僞。公羊高云“傳聞異辭”，荀況稱“錄遠詳近”，蓋文疑則闕，貴信史也。然俗皆愛奇，莫顧實理。傳聞而欲偉其事，錄遠而欲詳其跡。於是棄同即異，穿鑿傍說，舊史所無，我書則傳。此訛濫之本源，而述遠之巨蠹也。至于記編同時，時同多詭，雖定、哀微辭，而世情利害。勛榮之家，雖庸夫而盡飾；述敗之士，雖令德而嘖埋，吹霜煦露，寒暑筆端，此又同時之枉，可爲嘆息者也！故述遠則謬矯如彼，記近則回邪如此，析理居正，唯素心乎！若乃尊賢隱諱，固尼父之聖旨，蓋纖瑕不能玷瑾瑜也；奸慝懲戒，實良史之直筆，農夫見莠，其必鋤也；若斯之科，亦萬代一准焉。至于尋繁領雜之術，務信棄奇之要，明白頭詘之序，品酌事例之條，曉其大綱，則衆理可貫。然史之爲任，乃彌綸一代，負海內之責，而羸是非之尤。秉筆荷擔，莫此之勞。遷固通矣，而歷詆后世。若任情失正，文其殆哉！) (유협 1994, 208–209)

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기록들은 그것이 조작되었다거나 왜곡되었다는 실증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기록을 정직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다만, 후인으로서의 상고의 기록을 접함에 있어, 그것이 문자화 되어 있는 이상, 그 문자를 해독함에 좀 더 공정함과 엄격함을 견지함으로써 또 다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고염무는 문자해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전을 읽는 것은 문자를 고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문자의 고찰은 발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고, 제자백가서 역시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sup>13)</sup>고 하였다.(고염무 1983) 또한, 이에 덧붙여 ‘삼대 육경의 음(音)이 잘못 전해진지 오래되어, 세상에 남아 있는 그 글은 대부분 후세 사람들이 통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곧 금세의 음으로 그 글자를 고치니, 이에 경문을 고치는 병폐가 있게 되었다.’<sup>14)</sup>며 시대적 지식의 행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경전도 이와 같은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수시로 변화하는 시대의 산물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정확하게 - 진실 - 해석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전의 문제만도 아니요, 지금의 문제만도 아닌, 인류 역사를 망라하여 문자나 기호가 생긴 이래로 기록되어진 것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문자는 그 시대 - 문자가 기록된 때 - 의 시대 전반을 모두 함축하고 있으며, 쓰여진 시대와 읽는 시대에 따라 문자는 해석하는 자의 시대적 지식<sup>15)</sup>에 의하여 저자(著者)가 나타내고자 했던 뜻이 달리 해

13) 亭林文集 卷4 答李子德書 讀九經, 自考文始, 考文, 自知音始, 至於諸子百家之書, 亦莫不然。(顧炎武) <http://www.sfi108.com/bbs/viewthread.php?action=printable&tid=214265>

14) 三代六經之音, 失其傳也久矣, 其文之存於世者, 多後人所不能通, 以其不能通, 而輒以今世之音改之, 於是改經之病 (고염무(顧炎武) 1983)

석되어지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역사의 진실을 얻기 위해서는 도출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검증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여 얻은 진실이라 하여도 그것이 진정한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왜곡인지 알 수는 없는 것이다.(미셀 푸코 2000, 25-26)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홍익인간이라는 민족정신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먼저, 삼국유사라는 역사적 산물을 접함에 있어 시대적 지식으로부터 절연(絶緣)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한국의 정치문화 콘텐츠의 원류가 기재된 삼국유사 속 고조선조의 홍익인간에 대한 텍스트 해석에 대한 변수들을 먼저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 2. 삼국유사 텍스트 분석에 관한 변수들

삼국유사의 문자, 즉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모든 왜곡된 해석을 걸러내고 알맞은 해석을 이끌어내기가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민족 역사관련 실증적 자료로서 사서의 종류가 너무 빈약하다는 점이다. 정사라고 하는 삼국사기에서는 신화를 괴력난신에 비유하여, 상고사를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고구려·신라·백제 등 삼국 이전의 이야기는 삼국유사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고, 그나마 중국의 일부사서를 통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을 뿐

---

15)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역사란 문서를 기념비로 변화시키는 작업이며, 또 사람들에게 의해 남겨진 기록들을 해독하는 곳에서, 헛되이 그들의 옛 모습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곳에서, 한 무더기의 요소들(분리시키고, 분류하고, 관여적이게 하고, 서로 관계 맺게 하고, 여러 집합들로 구성해야 할)을 펼치는 작업을 연구에서는 시대적 지식으로 본다. (미셀 푸코 2000, 27)

이다.

두 번째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사적(史籍)인 삼국유사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한자를 모르고서는 과거를 정확하게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한자는 하나 또는 여러 의미를 지닌 뜻글자라, 그 문자가 쓰이는 문장의 문맥에 따라, 또는 쓰였던 시대의 문자적 유행에 따라 후에 문자해득에 있어서 삼국유사에 나온 고조선이라는 국명에 대한 해석<sup>16)</sup>처럼, 그 본의에 대한 해석이 시대적 지식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역사적 기록서들의 저자에 따른 시각적 차이를 들 수 있겠다.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면, 먼저 환단고기의

---

16) 고조선은 논자가 지금까지 찾아본 결과 일연의 삼국유사에만 최초로 나온 국명인데 현재는 오히려 고대 조선의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논자는 이는 판본상의 문제로서古속이 대궐되는 용어이므로 고조선은 금조선인 이태조의 조선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서 조선시대에 와서 삼국유사를 판각할 때 금조선과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고자를 가필한 것으로 보았다. 만약 고려시대에 이 용어가 사용되어 어떤 의미가 있다면 다른 사서에서도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후대의 조선에서 단 한 번 나타나고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만조선의 대칭어를 설령 쓴다고 하더라도 일연이 단군조선이나 왕검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굳이 고조선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자는 일연의 원래의 저술에는 〈조선(왕검조선)〉으로 기술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단군조선이 아니고 왕검조선으로 주석을 단 이유는 고려시대에는 왕검이라는 칭호를 더 선호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이는 김부식의 삼국유사에서도 〈선인왕검〉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주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고려는 황제의 국가이므로 제왕에 해당하는 〈왕검〉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군왕의 국가이므로 군왕에 해당하는 〈단군〉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의 일연은 〈왕검조선〉이라고 하였지만 조선은 내내 〈단군조선〉이라고 하였다. 이는 결국 조선유가들이 중국을 의식한 것이다. (이강식 2006, 251)

\* 위 연구논문의 해석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서해석에 대한 다른 견해 정도로 이해하고자 한다.

역자 임승국은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순수사료로 본 반면,<sup>17)</sup> 조선상고사의 저자 신채호는 일연이 불교도이기에 불교적인 수사가 섞여 있어 순수하다 보기 어렵다 하였다.<sup>18)</sup> 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료라는 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재해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대한 임승국과 신채호의 견해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고, 두 사람이 설정한 각각의 역사적 시각에 의하여 인용되는 사료이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대한 해석 역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역사관에 의한 해석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다만, 임승국과 신채호는 한민족 역사 전체를 논하였다

17) 한국기본사료상에서 한(韓)단고사의 전적을 찾는다면 삼국유사의 '고기운'의 기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저자 김일연은 불교인이기 때문에 삼국유사 전체가 신이기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다른 부분은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여 신이기에 치중한 듯한 느낌이 있지만 고기의 기록에서는 불교적 색채가 전무하다. 일연스님이 불교인이기 때문에 그 역사서술이 불교적 성격을 띠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유독 고기조에서는 불교색채가 전무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일연스님이 고기를 서술한 것이 아니고 고기라는 책(삼한고기 혹은 조선고기라고도 함)을 인용했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확증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기조는 불교인인 저자의 의견이 추호도 섞이지 않은 순수사료인 것이다. (임승국 1986, 290)

18) 고기에 이르기를, 환군제석이 삼위. 태백(돌 다 산 이름이다 - 원주)을 내려다보고 널리 인간 세상에 이익을 끼칠만한 곳이라 하여 아들 환웅을 보내어 천부와 인 3개를 가지고 가서 다스리게 하여,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리어 신시라 칭하니, 이가 곧 환웅천왕이다. -중략- 그러나 제석이나 웅이니 천부니 하는 따위가 거의 다 불전에서 나온 명사이며, 또한 삼국사의 초반의 사회에서도 여성을 매우 존시하였다는데 여기서는 남자는 신의 화신이고 여자는 짐승의 화신이라고 하여 여성을 너무 비시하였으니, 나는 이것이 순수한 조선 고유의 신화가 아니라 불교가 수입된 이후에 불교도의 손에 의해 접철된 것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재 신채호 2006, 94)

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삼국유사 고조선조 중 극히 일부분인 홍익 인간 부분만을 전체로 집중 분석한 점에서는 양적으로 동일한 비교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본 연구의 시각과 기존 연구에서의 시각이 호리천리(毫釐千里), 즉 처음에는 티끌 하나의 차이였으나 나중에는 천리의 차이가 될 개연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삼국유사 1권 기이편 고조선조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을 왜 다시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삼국유사 문자 해석에 있어서는 저술되었던 시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시대의 문자적 보편성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한정된 조건상황을 가지고 일연의 시대로 회귀되어야 하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한국 통치이념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일연의 삼국유사 기이 제1 고조선조에 기술된 홍익인간 부분인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정치사상의 원류인 홍익인간에 대하여 재조명하고자 한다.

### Ⅲ. 三國遺事 1卷 紀異－古朝鮮의 홍익인간에 대한 재해석

본 장에서는 三國遺事1卷紀異－古朝鮮 중,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의 문장 중에서, 기존 연구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되었던 문구인, 고조

선(古朝鮮), 서자환웅(庶子桓雄), 그리고 하사 삼위태백(下視三危太伯), 가이 홍익인간(可以弘益人間)을 중심으로, 기존의 해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김원중이 옮긴 삼국유사에서는 이 부분을 ‘고기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환인이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일연 2002, 36)라고 하였고, 장백일이 옮긴 삼국유사에서는 ‘고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옛날에 환인(제석을 이른다)의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탐내어 다스리기를 원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었다.’(일연 1998, 11)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이동환이 옮긴 삼국유사에서는 ‘아득한 옛날이다. 천상의 세계를 다스리는 상제에게는 환웅이라는 서자가 있었다. 그는 매양 지상을 내려다보며 인간의 세계를 다스려보려는 욕망을 품어오곤 했다. 아버지 환인은 그 아들의 뜻을 알아챘다. 그리곤 아래로 지상의 세계를 굽어보았다. 아름답게 펼쳐진 산과 강과 들— 그 가운데서 삼위태백이란 산, 그곳이 널리 인간을 다스려 이롭게 할 만한 근거지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일연 1994, 23)라 해석하였으며, 권혁률은 ‘고기에 보면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그곳이 과연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일연 1997, 20)고 옮겨 적고 있다. 또 한편,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낸 강좌 한국철학에서는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자주 세상에 뜻을 두어 인간세

상을 탐내므로,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만 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5, 110-111)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보면, 명사와 고유명사 부분을 음으로만 해석을 하였기에 각 책마다 별반 다름이 없이 해석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19)</sup>

이렇듯, 고조선조를 통한 정치문화콘텐츠의 원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장에 대한 기존 국내의 해석들은 대동소이하고, 시대적으로 삼국유사 이전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객관화된 시각들을 종합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삼국유사 외의 참고연구 자료로서, 좀더 확장적으로 국외 자료인 중국의 자료 등을 참고, 특히 삼국유사 이전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인용하여 연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후대(後代)에 저작된 자료라 할지라도 그 저작에 쓰인 원류는 전대(前代)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약(制約)적 한계가 있는지라, 유협(兪協)의 ‘時運交移, 質文代變, 古今情理, 如可言乎?’<sup>20)</sup>(유협 1994, 515)의 시각을 위로삼아 이를 바탕으로 본 주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1. 古朝鮮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학계에서는 고조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존의 일반적인 시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용하는 ‘어느 민족에게 있

19) 물론 본 연구에서 인용 기술한 책은 다섯 권에 불과하지만, 다른 책을 더 살펴보다 하여도 위 다섯 권의 해석과 크게 다름이 없으리라 본다.

20) ‘時運交移, 質文代變, 古今情理, 如可言乎?’ (‘시대와 풍속이 바뀔 때 따라서 변화가 생겨나니 질박함이나 혹은 화려함을 숭상하는 것이 각 시대마다 서로 달랐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의 사상과 감정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유협 1994, 515)

어서나 자기민족의 기원과 최초의 고대국가 형성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연구 작업이다. 한국민족의 최초의 고대국가는 고조선이다. 고조선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야 한국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히 밝힐 수 있다. 또한, 이 작업은 한국민족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직결되어 있는 일이다.’(신용하 2008, 6)라고 하였다. 또한, 이형구는 "단군신화는 고조선 사람들에 의하여 창작된 고조선의 건국신화이다."(이형구 1999, 30) 신화란 역사 이전부터 구전되어 오던 신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다소 신비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고대인의 삶과 사회적 경험이 녹아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해석한다면, 이는 고대인의 사유방식과 세계관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가장 오래된 신화인 단군신화도 이점에서 예외가 아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5, 110)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재원은 ‘단군신화 교육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신화에 대한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단군신화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올바른 지도이다. 일부 재야 사학자들은 역사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단군에 신화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신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다소 황당한 것 같은 신화의 내용 중에는 역사를 포함해서 종교, 사상, 철학, 민속, 문학 등의 내용이 상징적으로 두루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대한 교육에 앞서 신화에 대한 개념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이재원 2007, 190)라고 하였으며, 유동식은 ‘환은 桓因이고 雫은 남성을 의미하기에 아들의 표시이다. 환웅은 하느님의 아들이란 뜻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天神降臨信仰은 東北亞細亞의 유목민 사이의 공통된 신앙형태이다.’(유동식 1994, 102)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서적이나 연구논문, 더하여 중 고등학교의 국사교과서까지도 단군시대를 신화로 규정지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신화가 아닌 실제의 역사로 보는<sup>21)</sup> 연구논문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군이 신화인지 아닌지를 논하기보다는, - 다만, 무릇 고조선을 신화로 볼 경우,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 이야기와 글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반면, 역사로 접근할 때에는 행간에 담겨 있는 의미까지도 찾으려 애를 쓰는 점이 다

---

21) 가. 고조선 건국시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한(韓,寒,桓,駟)부족, 맥(貊)부족, 예(濊)부족의 3부족 결합설을 제시하고, "한부족을 찾아내어 추가할 뿐 아니라, 한 부족을 고조선 제왕을 배출하여 가장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부족으로 보는 견해다. (p.12.)

나. 한 부족은 태양숭배족이었다. 한 부족은 선진농경부족이었기 때문에 농업경작과 직결된 태양을 숭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p.18.)

다. B.C 3,500년경의 우하량 유적물과 홍산문화유적들은 맥부족의 문화를 많이 알려주고 있다. 맥부족은 신석기시대 후기까지 모계사회의 부족이었다. -중략- 맥부족은 여신숭배 부족이었다. (p.21.)

라. 맥부족은 곰토텐 부족이었다. (p.23.)

마. 예부족은 범(호랑이) 토텐부족이었다. (p.27.)

바. 한강유역으로부터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해 가서 정착한 '한부족의 한 갈래(환웅족)와 북방으로부터 내려와 정착한 "맥"부족의 주류 갈래, 그리고 "예"부족의 주류갈래 등 3부족이 대동강 중류에서 결합하여 3부족 연맹에 의해 최초로 고대국가를 수립한 것이 "고조선"국가이다. (p.28.)

사. 단군설화에서 신화적 요소를 분리해 버리고 역사적 사실적 부분만 간추려 사회학적 인류학적으로 해석하면 고조선 국가는 1) 천손의식을 가진 가장 선진적인 한(한)부족과 2) 곰토텐 부족인 "맥"부족의 "혼인동맹"에 의해 결합하고 3)범 토텐족은 다른 방법으로 결합해 개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가장 선진적 부족으로서 고조선 국가를 형성을 주도한 한(韓,桓)부족에서 왕(天王)을 내고, 貊부족에서 '왕비'를 내기로 합의되었음을 단군설화는 알려주고 있다. (p.30.) (신용하 2008)

른 점을 있다고 본다. - 분석을 통한 새로운 시각으로의 시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접하는 두 사학자 신채호와 임승국의 견해가 다름도 이와 별반 다름이 없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언급한 단군을 신화로 단정짓기에 앞서,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현재 시대적 과학적 지식기반에 위에서 일정한 틀 - 비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 로 재단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한민족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선조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누구도 자신의 5대조 이상의 선조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여 그 선조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만, 그 기록의 내용이 현재의 인식체계 틀 안에서 인식하는 바와 너무나 다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허황한 이야기로 꾸며졌다는 단정하에 신화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은 바로,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모순적 대립구조의 논리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을 단정 짓는다는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며, ‘홍익인간’에 대한 현존 기록이 현재까지 한국의 건국 통치 이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화, 비신화의 논쟁 대상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본다.

## 2. 庶子桓雄

서자환웅(庶子桓雄)에 대한 기존의 세 연구가의 해석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이병윤은 ‘嫡庶의 차별은 朝鮮時代 이후의 사상이다. 그 이전의 고대인에 있어서는 서계에 대한 천시의 관념은 적었을 것이다. 다만 庶

자란 長子가 아니므로 아버지의 권리를 정당하게 상속받을 만한 位置에 놓여있지 않는 자식임에 틀림이 없다.’(이병운 1994, 313)라고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영대는 ‘서자는 맏아들 이외의 衆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막내아들일 가능성이 높다.’(서영대 2001, 127)로 보았다.

세 번째 또 다른 해석으로 김정학은, ‘태양신은 여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다. 서자란 표현에서도 여신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설화의 원형에는 환웅이 여신으로서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었으므로 그 아들 응을 서자라고 하였을 것이다.’(김정학 1981, 51)라고 보았다.

이러한 서자환웅(庶子桓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시각들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첫 번째 분석가가 거론한, 적서(嫡庶)의 차별이 조선시대 이후의 사상이며 그 이전의 고대인에 있어서는 서계에 대한 천시의 관념이 적었을 것이란 분석은 그 의미에 있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로, 적서의 차별에 대한 천시 관념이 적었을 것이라는 판단의 기준은 조선시대 이후로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에서의 적서에 대한 현실적인 차별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적서에 대한 관념 및 시대적 지식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삼국유사 고조선조에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고, 어쩌면 그의 말처럼 고대인에게 있어 적서의 차별은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것 보다는 훨씬 적었거나, 어쩌면 적서의 사회적 신분의 차별은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적서의 차별이 없었던 시대에는 아예 적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적서라는 문자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적서라는 문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것의 구분이 비록 사회적 차별을 동반하지 않는다 하여도, 더 나아가서 단지 혈연적 구분을 짓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도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른 구분이나 구별이 분명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구분과 분별은 점차 그때까지는 없었던 차별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새롭게 생김으로 받게 되는 충격의 강도(強度)는 더할 나위 없이 강한 충격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라 본다. 즉, 서자라고 기록이 되기는 하였으나 적서의 차별이 지금과 같이 심하지 않았을 것임을 전제하고, 그러나 서자는 장자가 아니기에 환인의 적통, 즉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는 위치라고만 분석하는 것은 후대의 시각 - 삼국유사 이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각 - 이라 사료된다.

분명한 것은, 문헌적으로 첫번째 연구자의 분석에 대하여,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많은 자료에서 적서의 구분은 - 천시라는 관념이 필요치 않았다고 하여도 - 분명하게 명시하여 구분되고 있었으며, 또 서자라 하여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기록<sup>22)</sup>을 통해 보더라도 분명히 구분되어 사용되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자가 지적한, 서자가 만아들이 아닌 많은 자식들 중 하나의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는 막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 역시 서자에 대한 사전(字典)적인 해석<sup>23)</sup>으로서, 차별이 내포되어있는 적서의 구분에

22) 춘추좌씨전 문공하편 살적입서(殺適立庶) 중, ‘부인 강씨가 제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영영 돌아감이었다. 부인 강씨가 떠나려 함에, 그 여자는 울며 거리를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하늘이여, 양중은 무도하여, 태자를 죽이고 서자를 군주로 세웠오이다!' 라고 했다. 그러자 거리의 사람들이 다 우는 것이었다. 노나라 사람들은 강씨를 애강이라고 불렀다.’(春秋左傳 文公十八：夫人姜氏歸于齊，大歸也，將行哭而過市，曰天乎，仲爲不道，殺適，立庶，市人皆哭，魯人謂之哀姜。) (문선규 1985, 508)

23) 서자(庶子) : 첩의 몸에서 난 자식, 만아들 이외의 아들 (동아출판사 편집부 1982, 586)

기반을 둔 대부분의 분석과는 다르다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자전에 의거한 또 다름의 분석을 위한 분석 중 하나라 본다.

세 번째 분석자가 지적했듯이, 환웅이 여성으로서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었으므로 그 아들 응을 서자라고 하였을 것이란 분석 역시 단군이 신화라는 단정하에 기존의 학문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고조선조를 신화적 요소의 틀에 끼워 맞추는 부분이 다분하다 하겠다.

한 마디로, 삼국유사가 기술될 당시에는 적서에 대한 신분적 구분이 심하지 않았을 거라 유추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이 고조선조 부분에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전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유사에는 서자, 서형, 서녀, 서제라는 표현이 모두 다섯 군데 나온다. 그 중 한 곳이 고조선조 서자환웅이다. 두 번째가 기이 제1 도화녀와 비형량조에서 사랑부지서녀(沙梁部之庶女)<sup>24</sup>이고, 세 번째가 기이 제2 문호(무)왕법민조에서 서제 차득공(庶弟車得公)<sup>25</sup>이며 네 번째가 흥법 제3 보장왕이 노자를 받들고 보덕이 암자를 옮기다 에서 보장왕의 서자(寶藏王庶子)<sup>26</sup>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가 탐상 제4 남월산(南月山[亦名

24) 도화녀와 비형량 - 제25대 사료왕의 시호는 진지대왕이며 성은 김씨이다. 왕비는 기오공의 딸인 지도부인이다. 태건8년 병신년(576)에 즉위하여(고본에는 11년 기해년이라고 했으나 틀린 것이다.) 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음란하여 나라 사람들이 왕을 폐위시켰다. 이보다 앞서 사랑부의 민가의 여인이 열굴이 고와 당시(사람들이)도화랑이라 불렀다. 왕은 소문을 듣고 궁중으로 불러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그러자 도화녀가 말하였다.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두 남편을 삼기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천자의 위엄이 있다 해도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연 2002, 100-104)

25) 왕은 어느 날 서제 차득공을 불러 말하였다. ‘너를 재상으로 삼을 테니 백관을 고무 다스리고 온 천하를 평화롭게 하라.’ 공이 아뢰었다. ‘만약 폐하께서 소신을 재상으로 임명하신다면, 신은 은밀히 나라 안을 다니면서 민간의 요역이 편안한가, 세금이 무거운가 가벼운가, 관리가 깨끗한가 혼탁한가를 살펴본 후에 벼슬에 나가고 싶습니다.’ 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일연 2002, 147-151)

甘山寺)조에서 서형 급한일길찬(庶族及漢一吉滄)<sup>27)</sup>이다. 이상에서 본다면 기이 제 1 도화녀와 비형량조에서 사랑부지서녀(沙梁部之庶女)에서의 서녀는 혈연에 의한 것이 아닌 일반여자(평민)이라고 읽어도 무방할 것이나, 나머지 네 군데는 혈연에 의한 적서의 구분을 분명히 한 대목들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의 서자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일연은 이미 서자환응은 환인의 적통이 아닌 서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정작 적서에 대한 구분은 춘추시대에도 존재하였는데, 적장자는 '백'으로 불린다. '백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자의 장자는 '맹'으로 불린다. 노나라의 대부 '맹씨'가 여기에 해당된다.<sup>28)</sup>

26) 당나라 고종 총장 원년 무진년(668)에 우상 유인계, 대장군 이적, 신라의 김인문들이 고구려를 쳐서 멸망시키고 보장왕을 사로잡아 당나라로 돌아가니, 보장왕의 서자가 4,000여 가구를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하였다. ((국사)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록해 둔다) (寶藏奉老/普德移庵：高宗總章元年戊辰，右相劉仁軌/大將軍李勣/新羅金仁問等，攻破國滅，擒王歸唐，寶藏王庶子率四千餘家，投于新羅。〔與國史\*小(少)殊，故并錄。]) - (일연 2002, 296-298)

27) 개원 7년 기미년(719) 2월 15일 중아찬 김지성이 돌아가신 아버지 인장일길찬과 어머니 관초리 부인을 위하여 감산사 한 채와 돌미륵 한 개를 공경스런 마음으로 세우고, 또 개원 이찬, 아우 양성소사와 현도사, 만누이 고평리, 전부인 고로리, 후처 아호리, 그리고 서형 급한일길찬, 일당살찬, 충민대사, 누이동생 수힐매 등을 위해 이러한 착란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어머니 초리 부인이 고인이 되자 동해 유유가에서 뼈를 뿌렸다.(고인성지이하의 글은 그 뜻을 알 수 없어 다만 옛글을 그대로 적어둔다. 아래도 같다.) (開元七年己未二月十五日，重阿滄全忘誠\*(金志誠)，\*(奉)爲亡考仁章一吉\*于(干)，亡妃觀肖里夫人，敬造甘山寺一所石彌勒一軀，兼及愷元伊\*〈滄，滄〉，\*第(弟)懇\*(良)誠小舍，玄度師，姉古巴里，前妻古老里，後妻阿好里，兼庶族\*〈兄〉及漢\*〈漢〉一吉滄，一幢薩滄，聰敏\*〈敬〉\*(七)(大)舍，妹首賈買等，同營茲\*〈其〉善。亡妣\*〈官〉肖里夫人，古人成之，東海攸友\*〈欣支〉邊散也\*〈之〉。〔古人成之以下，文未詳其意，但存古文而已，下同。]) - 일연, 상계서, pp.400-401.

28) 適長稱伯，伯禽是也。庶長稱孟，以魯大夫孟氏。(반고 2005, 346)

<http://ctext.org/bai-hu-tong/xing-ming/zh>

이런 점에서, 위 이병운의 “다만 庶子란 長子가 아니므로 아버지의 권리를 정당하게 상속받을 만한 位置에 놓여 있지 않는 자식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분석이 조금은 타당할 듯싶으나, 이 분석 역시 서자를 첩의 자식이 아닌 장자 이외의 자식으로 봄으로써, 적서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음은 일연의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보여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자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적서라는 혈연적인 구분이 아닌, 형제간의 서열의 구분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앞의 예기에 있어서의 적자와 서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본다면, 서자 환웅에 대한 기존의 여러 분석자들의 해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서자환웅(庶子桓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전에 먼저 전체되어야 할 문제는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의 고조선조의 문장이 과연 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가, 아니면, 일연이 고기에서 본 글을 자신이 필요에 의하여 요약한 것인가에 대한 점이다. 이 말은 곧,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대하여, 앞서 말한 임승국처럼 일연이 순수하게 고기를 인용했다고 볼 것인가, 아님 신체호처럼 불교적 색채를 가미하여 일연에 의하여 가감된 것인가도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임승국처럼 본다면 서자에 대한 것은 지금의 어떤 분석도 배제하고, 또 다른 실증적 사료에 의하여 새롭게 검증을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며, 그 이유는 단군 왕검의 시대적 배경이 중국의 요, 순 시대와 동일한 시대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더 사료의 부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텍스트 그대로 ‘서자’ 로 볼 여지는 있다. 이

는 서자라는 것이 단순히 일부다처제하에서 모계쪽 혈연으로서, 환인에 계는 다른 부인 - 복수일 수도 있다 - 이 있고, 그렇다면 환웅 말고도 또 다른 자식들 - 서자들 - 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서도 중요함의 경중(輕重)은 내릴 수 없지만, 단지 환인과 환웅이 살았던 하늘의 세계 - 관념적 의미에서의 하늘의 세계 - 도 지상에서의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채호의 판단은 분명 일연(一然)의 불교적 색채가 가미되었다고 보았고, 이는 일부 문장이나 문자도 일연적 색채가 가미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쩌면 저작자로서의 일연의 색채는 당연한 것이라, 당시 시대적 지식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렇다면, 예기에 대한 백호통의 절충처럼, 고기에 대하여 일연도 어떤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한데, 만일 그렇다면, 일연은 왜 우리 민족 역사의 시조(始祖)인 환웅을 서자라고 기술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sup>29)</sup> 이것이 기록자(사가)로서의 양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서자여야만 하는, 일연 나름의 의도가 있는지에 대하여 나름 그 의미를 유추해보면, 일연에 의하여 환웅이 서자로 기록된 이유가 비록 한 민족의 시조임에도 불구하고 적장자가 아닌 서자라는 점을 수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천상에서 지상으로 강림할 수 있는 가장 확실

29) 이는 위의 첫번째 연구가의 분석처럼 적서의 차별이 조선시대 이후라지만, 일연이 살았을 당시에 비록 적서의 차별이 조선시대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할지라도 앞서 본 자료에서 보았듯이 고려시대 훨씬 이전부터 적서의 구분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연은 자신이 속해있는 민족의 시조에 대한 출생을 적통자가 아님에서 시작케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한 명분, 동기였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가능성에 무게를 신게 된다.

만일 환인의 적장자라면 하늘의 세계를 놔두고 인간세계에 내려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뎨 그야말로 신화다운 신화로서 신이 인간을 어여삐 여기고, 가엽게 여겨 하늘의 세계를 버리고 인간의 세계로 내려온다는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세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명분 - 인간세계에서의 시각으로 볼 때 - 이 없고, 자신이 그 곳에서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없다고 하였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으로서의 인간세계는 더 이상 선택자의 선택 이유에 대한 부연적 설명이 필요 없다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數意天下, 貪求人世는 환웅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늘세계에서 새로운 선택으로서 인간의 세계를 탐하게 되고 그로써 지상으로의 강림이 환웅의 필연적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되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역사서 그대로 인용이 되었든, 일연의 치밀한 문장력이 돋보이는 자의적인 해석 - 본 연구에서의 시각 - 이 가미되었든,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서자라는 이 부분이야말로, 인간세계로 향하는 중요한 당위성이자, 동인이 되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견해이다. 이제 이어서, 지상세계에서의 공간적 당위성인 삼위태백 부분과 본 연구의 핵심적 논제인 홍익인간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삼위태백에 대한 명확한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다.<sup>30)</sup> 방석중은 삼위

30) 중국에서의 최근 논문들에서는 삼위의 위치를 1.敦惶說 2.甘肅說 3.西裔說 4.云南

태백에 대하여, ‘삼위는 중국 서쪽 변방 돈황 남쪽 산 이름으로 나온다 (서경, 회남자), 산 둘레 100리로 조서산이다 (산해경), 용인이 말하는 세 봉우리의 산을 말한다 (상서), 현재는 감숙 지역 어딘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삼위는 태백과 결합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중국과 한반도에 걸쳐 있는 광활한 영토이다.’(방석중 2006, 47)라 하였고, 송호정은 고조선의 위치에 대하여 ‘고조선의 역사지리 문제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문헌자료만의 재해석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료가 대부분 단편적이고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조선의 역사 지리 고찰을 위해서는 남만주 요녕성 지역의 고대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서북한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고조선과의 관련 여부를 추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sup>31)</sup>(송호정 2010, 57-62)고 보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기존의 고조선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삼위태백보다는 아사달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규명하는데 있었다. 이는 삼위태백 자체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사료보다는 단순히 신화적인 측면에서의 국가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나, 그래도 많은 연구물들이 삼위태백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연구에도 중점을 둔다. 더불어, 더불어 홍익인간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삼위태백과 홍익인간과의 상관관계 - 물론 그것은 삼국유사에 적

說 5.康藏偉說 6.四川說 7. 其它 등으로 보고 있다. (陣愛峰 외 2006, 101-105)  
 31) 고조선 사에 대한 역사 지리 연구는 각 시대의 역사인식과 연구과제에 따라 그 관심과 방법론이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요동 지역에 초기 중심지를 두었던 고조선이 후기 단계에 이르러 燕의 진출로 서북한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들어 고고학자를 중심으로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를 대릉하 유역까지 포함시켜 보려는 견해가 집중 검토되고 있다. 여전히 평양 대동강 유역에 중심지를 두고 있었다는 견해도 존재하는데, 이 주장도 초기 고조선의 서변은 요동까지였다고 보고 있다. (송호정 2010, 57-62)

힌 문맥에 의한 상관관계가 전제이지만 - 에 있어서는 삼위태백보다는 홍익인간으로 연구가 편중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 본 연구의 목표가 텍스트 해석에 의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기존의 연구가 추구하던 방향과는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으로는 삼위태백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거론하기보다는, 본 연구의 중점적 사항으로 견지하는 바가 홍익인간이며 그 홍익인간을 위하여 삼위태백이 가지는 지리적 위치성보다 ‘지상’이라는 지형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거론하고자 한다. 물론, 삼위태백의 정확한 위치가 확정된다면, 고토(古土)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있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학술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선조들이 살았었던 곳이라는 광의의 지리적 위치로 확대하여 논지를 펴고자 한다.

앞서, 환웅이 천상을 내려오게 된 배경으로, 마치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조<sup>32)</sup>가 유리의 등장으로 인해 아버지 주몽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고 무리를 이끌고 새로운 땅을 찾아 고구려를 떠나는 것처럼, 환웅도 하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새로운 세계를 원했고, 그 세계로 천상이 아닌 지상의 인간세계를 택하였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 안 아버지 환인이 아들을 위하여 지상을 살피던 중 삼위태백이란 곳을 보고는 ‘可以弘益人間’,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겠다.’고 한 이 대목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언급했듯이 같은 문장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삼위태백이란 지형과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을 분리하여 연구를 하였거나 또는 경중(輕重)에서 홍익인간이 중하게 논의되고 삼위태백은 단지 지리적인 위치로서 고고학적

32) 백제의 시조.

측면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 나오는 ‘可以弘益人間’라는 문장을 자세히 살펴 보면, ‘可以’는 조동사로서 허거나 기능을 나타내고, 동사 앞에 쓰이며 이치가 이와 같아야 함을 나타내고, 동사 앞에 쓰인다고 하였다.<sup>33)</sup> 그러므로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에서 ‘가이(可以)’ 뒤에 나오는 ‘홍익(弘益)’은 동사이고 ‘인간(人間)’은 목적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때, 이 문장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에서의 주어는 당연히 지형,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삼위태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하면 ‘아래의 삼위태백을 보시고는, 이곳이야말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이다.’가 된다 할 수 있다. 즉, 삼위태백이라는 지형 및 지리적 위치가 환인이 생각하고 환웅이 실천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홍익인간을 실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삼위태백이란 곳이 선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좀 더 바꾸어 말하면, 삼위태백이야말로, 홍익인간을 실천하기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필연적 연관성을 지닌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겠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동양의 유토피아적인 태평성대였던 요순시대를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요순이 통치자의 표상으로 추앙 받을 수 있는 데에는 그들의 통치술에 의하여 백성들의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곳이 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물론, 홍수라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적 재해도 있었겠지만, 홍수는 다른 면에서

33) 예1)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맹자 양혜왕상) 오백 이랑의 택지에 뽕나무를 심으면, 쉰 살 된 사람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다. - (김원중 1989, 211-212)

본다면 물의 풍족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당시 통치자에게는 최대의 난제였고, 그 난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량이기도 했으리라 본다. 즉, 지도자의 인성과 국토가 위치한 자연적인 조건의 결합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인간의 능력으로 너끈히 의식주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줄 수 있는 마땅한 곳을 환인은 환웅에게 지정해 주었다. 그것이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인가이다. 홍익인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웅은 신시를 만들었고, 제도를 만들었다. 모든 일체의 행위가 바로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행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장에서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신화가 아닌, 건국이념으로서의 古朝鮮과, 신이 굳이 천상을 두고, 직접 인간세계로 내려와 건국을 하고 통치하게 되는 당위성의 근간 이론이 되는 서자의 개념, 그리고 삼위태백을 통하여 홍익인간을 실천하기 위한 필연적 전제조건으로서 새로운 공간적 개념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한국 정치문화콘텐츠의 원류라 할 수 있는 ‘홍익인간’에 대한 의미를 재조망해보고자 한다.

#### 4. 弘益人間的 문자적 해석, 그 시대로의 회귀

군자의 책임 논어를 많은 사람들이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논어를 배우는 사람은 군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군자일 필요는 없을지라도, 논어가 가지는 생명, 군자를 위한 책의 소명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홍익인간을 한국의 현실인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맞춰서 재해석하고 있다. 또한 홍익인간은 누구나 펼치고 실행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해 현실의 사회적인 제이론에 의하여 홍익인간을 인본주의나 어떤 ‘주의나 이념’ 등으로 재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그나마 한 단어로 표현된 것은, ‘인본주의’나 ‘공리주의’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일부 ‘홍익인간’의 부분적 일부 의미에서 유사할 뿐이지, 전체적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언어를 발견하긴 쉬운 일이 아니다. -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홍익인간은 그러한 사회적인 제이론에 꿰맞춰지는 것이 아닌, 지금 현 정치체제와는 맞지 않는 군주제적인 성격에 적합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는 바로, 홍익인간 사상은 군주 또는 군자의 위치에서, 실현할 수 있는 통치이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어져 내려온 지도자들에게 어떤 통치이념이 유지(維持)되었는가를 후대에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라 본다. 홍익인간을 관념적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홍익인간을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가 처음부터 견지(堅持)하고자 하였던 문자적 해석, 그 시대로의 회귀는 지금의 시대적 지식에 의한 재해석을 지양(止揚)하고자 함이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확대해석이 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경계이다.

그럼에도 홍익인간이라는 통치이념을 현재 한국의 정치사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것이 결과가 아닌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여도, 정치는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없어지지 않을 사회적인 하나의 방향이며, 그 방향에 마스터키를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라 보고 있다. 어떤 지도자이나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 그 진리를 알았던 선조는 단순히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적이며 현실적인 통치이념을 천형(天刑)으로 넘겨주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이제 근대 한국 정권 정치지도자들을 통해서 홍익사상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 IV. 한국정권 정치문화를 통해서 본 홍익사상(弘益思想)의 재조명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순탄한 정권의 변화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승만 정권은 4.19혁명에 의하여 무너졌고, 장면 정권은 5.16 군사정변에 의하여 무너졌으며, 박정희 정권은 내부 측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두 육사 동기에 의한 시대가 계속되었지만, 6.29 선언을 만들어낸 민중에 의해 김영삼 정권이 탄생되었고, IMF라는 환란이 김대중 정권을, 이어 조금은 다른 면이 있을 듯하나 노무현 정권이 대를 이었다. 이어 경제회복이라는 기치를 앞세워 지금의 이명박 정권에 이르고 있다.

한민족사에 비하면, 길지도 않은 70 여 년의 기간 동안 왜 이처럼 많은 정권들, 그것도 전 정권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정치지형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치자들을 통해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승만 정권은 해방과 함께 미국을 통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해임정과의 갈등 그리고 6.25라는 전쟁을 통

하여 국민들의 삶은 밑바닥에 있었던 상황에, 통치자는 국민들의 의식주가 어땠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리에 있었다. 더하여 부정선거를 통한 민심의 분노로 촉발된 4.19혁명에 의하여 정권은 붕괴되었다. 그러나 이어진 장면 정권에서 전 정권의 실패가 정치 시스템에 있다고 여겨, 대통령제에서 의회제로 권력 시스템을 바꾸었지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이후 군부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 군사정변에 의하여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국민들의 소리를 정확히 읽어 내어, 삶의 가장 기본인 의식주의 해결을 위하여 모든 권력을 집중,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그 시대, 박정희 정권의 업적, 다시 말해 경제적 부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문제는 박정희 정권 역시 그 다음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단순한 본 연구에서의 평가이겠지만 박정희 정권은 집권연장은 지금보다 나은 의식주의 해결만이 모든 국민들의 열망인 것처럼, 모든 다른 인권과 권익은 묻어버리는 정당성을 내세우게 된다. 이때, 통치자에게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하여 제한되었던 문화적 삶의 향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경우, 통치자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 통치자는 성공한 통치자가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통치자들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무너졌다.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은 누르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정권이 탄생하였고, 지금의 이명박 정권의 탄생은 내부적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경제실패에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초기부터 국민과 정권의 갈등은 심화되었으며, 이는 현 정권이 국민들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읽지 못하였다

보여진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시절의 새로운 변화는 초기에는 당연히 국민들의 삶에 많은 혼란을 주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국민들은 서서히 그 변화에 적응을 해 나갔고, 그 달콤함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난 정부와 이념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했던 정당 - 단체, 그리고 개인도 포함하여 - 을 부정하면서도 향유하는 당연한 인식체계 안에서 그것을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과 그 정부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모습도 연출하였다. 즉, 이는 현 정부가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 지난 정권에 의하여 만들어져 누렸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그 목표 - 경제적 풍요 -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수단을 강제하듯, 수없이 많은 정책과 제약이 수반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제도와 권력에 대한 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주장한, ‘군주는 법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힘에 의지해야 한다.’<sup>34)</sup>(니콜로 마키아벨리 2010, 22)는 것을 주장했다.

34)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짓밟아 뭉개버려야 한다 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면 그들의 복수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예 크게 주어야 한다.(니콜로 마키아벨리 2010, 22) - 중략 - 군주가 신의를 지키며 기만책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칭송받을 만한 일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따르면 우리 시대에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들은 신의를 별로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책을 써서 인간을 혼란시키는 데에 능숙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맞서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방법은 인간에게 합당한 것이고, 둘째 방법은 짐승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로는 많은 경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후자에 의지해야 합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2010, 118)

이와는 다르게, 고덕원은 홍익정치의 핵심에 대하여, “‘홍익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치체계를 수립함에 앞서 民의 기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제도와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적 시스템을 아무리 새롭게 정비한다 하더라도, 그 제도와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결국 民이 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떻게 하면 民의 자각을 높여 인성을 신성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에 ‘홍익정치’ 구현의 성패가 달려있다 하겠다. 여기서 民의 인성을 신성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선인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된다.”(고덕원 2010, 33)고 역설하였다.

한편, 제자백가 중 종횡가의 비조로 알려진 귀곡자는 이익을 챙기기 위한 방편을 천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비겸술<sup>35)</sup>을 설파하였다. 마키아벨리나 귀곡자의 주장을 보면 앞선 요순시대나 목자의 이상론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러나 현재 현실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에서 흔히 연상되는 양상이며, 이점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이는 곧, 그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졌든 하여도 그들이 지도자 - 권력자 - 의 위치에 있게 되면, 세상은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에도 그들의 정치적 신념대로

---

35) 이 비겸술을 천하에 적용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천하의 권세와 능력을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천시의 성쇠를 보아야 하며, 지형의 광활함과 협착함, 산천의 험준함과 평탄함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백성들 재산의 많고 적음과 제후들 사이의 교류에서도 누구와 친밀하고 누구와 소원한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지를 알아내어야 하고, 마음속의 우려와 걱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아내야 하는데, 이래야 비로소 그가 가장 중시하는 것을 말하며, 비겸술로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으로 유인하여야 비로소 협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비겸술을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측량하고, 그 사람의 기세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판단의 중심으로 하여 그를 받아들여 따르거나, 그를 협박하여 화평하게 지내거나, 뜻을 같이 하여 의중계 지내거나 한다. 이것이 비겸술의 비결이다. (귀곡자 2007, 68-73)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위정자(爲政者)가 백성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와 역사적 문화가 유사한 중국의 경우에서 볼 때, 사마천의 사기 화식열전에서 그 단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sup>36)</sup> 목자 또한, 천하의 지도자들이 있어도 천하가 혼란한 원인에 대하여,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을 지도자로 보고 있다.<sup>37)</sup> 이와 반대로 중국의 샤먼(廈門)대

36)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신농 이전의 일은 나도 알지 못하지만, 시경, 서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와 하 이후로는, 귀와 눈은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빛깔을 좋아하여 모두 듣고 보려 하고, 입은 소와 양 따위의 좋은 맛을 다 보려 하며, 몸은 편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마음은 위세와 영화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습속이 백성의 마음에 스며든 지 오래다. 아무리 노자의 현묘한 이론을 들고 나와 집집마다 들려주어도 도저히 감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최선의 위정자는 백성의 마음에 따라 다스리고, 차선의 위정자는 이득으로써 백성을 이끌고 그 다음의 위정자는 백성을 가르쳐 깨우치고, 또 그 다음의 위정자는 힘으로써 백성을 바로잡고, 최하의 위정자는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太史公曰：夫神農以前，吾不知已。至若詩書所述虞夏以來，耳目欲極聲色之好，口欲窮芻豢之味，身安逸樂，而心矜於執能之榮使。俗之漸民久矣，雖戶說以眇論，終不能化。故善者因之，其次利道之，其次教誨之，其次整齊之，最下者與之爭。－貨殖列傳第六十九－) (사마천 2003, 551)

37) ‘지금 천하의 사람들이 말한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천하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천하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건만 천하가 혼란한 원인은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일까? 목자가 말하였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지도자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옛날과는 다르다. 비유를 들면 마치 묘나라 임금에게 다섯 가지 형벌이 있는 것과 같다. 옛날에 성왕들은 다섯 가지 형벌을 제정하여 놓고서 천하를 다스렸다. 묘나라 임금이 다섯 가지 형벌을 제도화함에 이르러서는 그럼으로써 천하를 어지럽혔다. 그러니 이것은 어찌 다섯 가지 형벌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겠는가? 형벌의 사용이 곧 좋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하여 옛 임금들의 책 〈서경〉의 여형에서는 말하기를 ‘묘나라 백성은 선함을 따르지 않아 형벌로써 제재하였는데, 오직 다섯 가지 사나운 형벌을 만들어 놓고서 법이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곧 이것은 형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으로써 백성을 다스리고, 형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으로써 다섯 가지 사나운 것을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어찌 형벌이 좋지 않은 것이겠는가? 형벌의 사용이 좋지 못하여 그 때문에 마침내 다섯 가지 사나운

학교 이증텐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백가쟁명에서 한비의 법가적 사상을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sup>38)</sup> 물론, 제도와 지도자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결정 내릴 수는 없다. 한 마디로, 정치론에 의해 만들어진 시대라 정의해도 과히 틀림없을,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300여 년을 관통하는 제자백가의 논쟁 이후, 2 천 년의 시대를 지나온 지금까지, 전시대를 관통하는 거의 모든 사회정치론의 중심이 군주인 권력자였는가, 아니면 국민이었나, 그도 아니면 누구에 의하여 발견되는 방법론 - 제도 - 였는가만 다를 뿐이다. 이는 곧, 절대적인 선(善)이 정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그 절대적인 선을 지향하고, 그것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점이 바로, 본 연구가 시대를 막론하고 법과

---

짓을 하게 된 것이다.’(今天下之人曰：“方今之時，天下之正長猶未廢乎天下也，而天下之所以亂者，何故之以也？”子墨子曰：“方今之時之以正長，則本與古者異矣，譬之若有苗之以五刑然。昔者聖王制爲五刑，以治天下，逮至有苗之制五刑，以亂天下。則此豈刑不善哉？用刑則不善也。是以先王之書呂刑之道曰：‘苗民否用練折則刑，唯作五殺之刑，曰法。’則此言善用刑者以治民，不善用刑者以爲五殺，則此豈刑不善哉？用刑則不善。故遂以爲五殺。)(목자 2003, 164)

- 38) 요순이나 걸주는 그야말로 천 년에 한 번 만나기조차 힘든 인물들이니 그들을 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우리 법가의 제도는 오히려 "중간 정도의 군주"에 맞춰 마련한 것이다. 절대 다수의 세습군주는 다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요순처럼 뛰어난 성인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걸주처럼 악독한 군주들도 아닌 평범한 보통사람들이다. 그런 이가 나라와 천하를 다스린다면 과연 무엇에 의지해야 하겠는가? 덕행이나 재주인가? 그들은 덕이나 재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니 오히려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어보지 않아도 분명하다. 그것은 권세에 의지하는 것이다. - 중략 - 문제는 이러한 이상이 군주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민주시대에도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민선의 대통령 중에도 덕행이나 재주가 부족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따라서 한 국가를 다스리는 데 오로지 지도자의 개인 인품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도 이러한 이상에 따라 설계할 수 없다. (이증텐 2010, 441-443)

제도보다도 통치자에게 주목하는 이유이며, 그렇기에 이러한 점에서 홍익인간을 실천할 올바른 정치지도자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기존의 선행연구들처럼, 결국엔 시대적 지식에 의하여 한국의 정치사상의 원류는 어쩔 수 없이 홍익인간으로 모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 어디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형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마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가 한 때 한국인을 온통 '정의(正義, Justice)' 속에 함몰시켰던 열풍에도 불구하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도 결코 정의(正義)의 정의(定意)를 내리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sup>39)</sup>

즉, 정의는 누구에게, 또는 어떤 행위가 정의라는 결론을 항상 만들

39)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탐색했다. 어떤 이는 정의란 공리나 행복의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언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쯤에서 독자들도 눈치를 챘겠지만, 나는 세 번째 방식을 좋아한다."(마이클 샌델 2010, 360-361)라는 말로써 저자 자신의 정의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더하여, 저자가 제시한 사례는 미국의 사례이고, 그 사례에 대한 판단은 미국식 관습과 미국식 정의관에 의한 것이라 보며, 또한, 한국에 불어 닥쳤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열풍은 베스트셀러라 하면 너도나도 읽어야 한다는 사회적 율리현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어내지 않는 다는 것과 정량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는 팩트에 따라 변하며 이것은 결과적 진행형이라 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홍익인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짚어봐야 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역사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지도자 또는 권력자의 정치적 신념이 무엇인가에 따라 권력의 부침(浮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한 권력의 부침에 따라 백성들의 삶도 역시 부침될 수밖에 없는 없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 하겠다.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모든 진리는 일단 발견하기만 하면 이해하기 쉽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발견이다.”<sup>40)</sup>라고 하였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 찾기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현실정치이고 그 정치를 ‘홍익인간’이라는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절실하게 홍익의 부활을 필요로 하는가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홍익인간정치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결과를 추구해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 -삼위태백의 현대적 변화-와 정치적 신념 - 홍익인간 -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나갈 지도자 - 환웅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대사를 통한, 한국의 정치사상의 원류를 통해서 조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역사가 유구하고 우리의 조상이 홍익인간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으로서의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시각 때문은 아니다. 더욱이 역사가 현재 시사하는 바가 단순히 역사를 교훈 삼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의 홍익인간은 국가건립의 정신적 요체이고,

---

40) All truths are easy to understand once they are discovered. The point is to discover them.

백 년 후 이 땅을 이끌어갈 후손들을 위한 교육의 지표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는 홍익인간이 수 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구호적이며 표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어떤 것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며, 그 어떤 인간도 정의내릴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이로운 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독(毒)임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약(藥)이 되는 것이 세상이다. 그렇게 많은 변수가 많은 곳에서 어떻게 인간이 널리 이로워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그 누구도 감히 쉽게 내리기는 힘들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환웅이 홍익인간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한 것, 또는 정책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명하게도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 했던 일만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홍익인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지도자의 인성에 의하여 통치의 방향이 수시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한국의 정치현실의 주요 쟁점처럼, 모든 것이 순위 경쟁이며, 삶의 목표가 경제적인 성공인 것처럼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도 향후 지도자가 될지 모를 그 누군가에게는 홍익인간이라는 통치이념을 부여해주고, 올바른 홍익인간의 실천이야말로 지도자의 올바른 인성에 의한 것이라는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삼국유사를 통하여 제기된 한민족의 고유사상인 홍익인간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지금 이 시대에 홍익인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재조명해 보았다. 이는 곧, 홍익인간

정치로의 발현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를 통하여 홍익인간이 결과적 제시가 아닌 진행형이라는 시각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에도 환웅이 환인으로부터 홍익인간을 펼 수 있었던 기틀인 삼위태백이 어디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환웅이 왜 그때 그런 정치를 펼쳤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이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환웅이 그린, 홍익인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도자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정치의 요체이고, 그에 대한 실체적 접근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이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홍익인간정치 실현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는 그런 방향 - 진정한 홍익인간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 으로 진행 발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계연수 엮음(2006), 『환단고기』, 고동영 옮김, 한뿌리

고덕원(2010), “韓國仙道の ‘홍익정치론’과 ‘仙人지도자’”, 국학석사학위논문, 국  
제대학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33쪽.

귀곡자(2007), 『귀곡자』, 박용훈 옮김, 학민사

김원중편저(1989), 『虛詞辭典』, 현암사

김정학(1981), “고조선의 청동기문화”,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51쪽.

니콜로 마키아벨리(2010), 『군주론』, 강정인·김경희 옮김, 까치글방

단재 신채호(2006), 『조선상고사』, 박기봉 옮김. 비봉출판사

동아출판사 편집부(1982), 『동아한한대사전』, 동아출판사

묵자(2003), 김학주 역저, 『묵자 (상)』, 신완 역, 명문당

문교부(1958), 『문교개관』, 문교부

문선규역저(1985), 『춘추좌씨전(상)』, 신완 역, 명문당

미셸 푸코(2000),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 (주)민음사

반고(2005), 『백호통의』, 서명출판

방석중(2006), “요하문명과 고조선 역사의 문명사적 고찰”, 『단군학연구』 15호,  
47쪽.

사마천(2003), 『사기열전(2)』, 박일봉 역, 육문사

서영대(2001), “단군신화의 의미와 기능”, 『단군과 고조선사』, 노태돈 편저, 사계  
절, 127쪽.

송호정(2010),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57-62쪽.

신완순(2008), “신시대평지세(神市太平之世) 홍익인간”, 『통일한국』, 84쪽.

신용하(2008), “고조선 국가의 형성-3부족 결합에 의한 고조선 개국과 아사달  
-”, 『한국고대사연구』 제50권, 6쪽.

유경문(2000), “홍익인간 사상과 경제 -홍익인간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학적  
접근”, 『단군학연구』 제2호, 254-255쪽.

유동식(1994), 『시조신화의 구조』, 이은봉 엮음, 단군신화 연구

유협(1994), 『문심조류』, 최동호 역편, (주)민음사

이강식(2006), “三國遺史, 古朝鮮의 古記와 帝王韻紀, 前朝鮮紀의 本紀가 舊 三  
國史, 檀君本紀라는 辨證”, 『단군학연구』 제15호, 251쪽.

- 이민수 역해(1997), 『예기』, 해원출판사
- 이병윤(1994), 『단군신화의 정신분석』, 이은봉 엮음, 단군신화 연구
- 이재원(2007), “교과서에 서술된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고찰 -문학교과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제16호』, 190쪽.
- 이중텐 지음(2010), 『선진제가백가쟁명』, 심규호 옮김, 에버리치홀딩스
- 마이클 샌델(2010),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옮김, 김영사
- 이형구(1999), “단군과 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단군학 연구』 창간호, 30쪽.
- 일연(1997), 『한권으로 읽는 삼국유사』, 권혁률 옮김, 도서출판 녹두
- 일연(1994), 『삼국유사』, 이동환 옮김, 도서출판 장락
- 일연(1998), 『삼국유사』, 장백일 역해, 하서출판사
- 일연(2002), 『삼국유사』, 김원중 옮김, 을유문화사
- 임승국(1986), 『사림-한국고대사논총』, 진영출판사
- 陳愛峰 외(2006), 『青海民族研究 ‘尙書’三危‘地望’의述評』, 西北民族大學
- 한국철학사상연구회(1995), 『강좌 한국철학』, 예문서원
- 존 롤즈(2003),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 <http://ctext.org/bai-hu-tong/xing-ming/zh>
- <http://www.guoxue123.com/zhibu/0301/01bhty/008.htm>
- <http://www.sidneyluo.net/b/b05/11.htm>
- [http://www.ica.org.cn/content/view\\_content.asp?id=24759](http://www.ica.org.cn/content/view_content.asp?id=24759) (국제유학연합회)
- <http://www.sf108.com/bbs/viewthread.php?action=printable&tid=214265>
- <http://www.sf108.com/bbs/viewthread.php?action=printable&tid=214265>